

내 행동만이 내 인생이 된다

(사도행전 18:9-18)

머릿속의 생각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구체적인 행동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는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말씀에 빈틈 없이 붙어 있을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 중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심신이 지쳐 그곳을 떠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즉시 이 말씀에 자신의 온 삶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에 가득하던 인간적 두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손길은 세상 권력자인 갈리오 총독을 통해 먼저 드러났습니다. 당시 바울의 사역으로 수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을 찾아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신임 총독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수의 민원을 쉽게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의 처벌을 이용해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다수 세력의 여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종교 내부의 사소한 논쟁으로 판단하고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이는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하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무죄 판결은 훗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법적 판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적대적인 사건을 통해 가장 신실한 동역자를 창조하십니다. 고소가 기각되자 분노한 유대인들은 새로운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보는 법정 바로 앞에서 그를 집단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원래 바울이 맞아야 할 고난의 매를 박해자였던 소스테네스가 대신 맞은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사건은 소스테네스의 영혼을 깨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변화를 결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린도 전서에 바울과 동반자로 등장하는 교회의 핵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역사는 복음서에 기록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군병들에게 끌려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지독히 억울하고 부당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 고난은 그의 가정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초대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자 지도자로 굳건히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기며 모시는 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불합리한 오해나 원치 않는 무거운 십자가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세밀한 쪽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은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위대한 사역을 마친 바울은 겐그레아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기 전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이는 민수기 6장의 나실인 법에 따른 서약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 기간에 이 서약을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말씀에 적극적으로 밀착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첫 순간부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네비게이션을 스스로 믿으며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고 질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한 치 앞길도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겸손히 선언합니다. 나의 눈과 이성적 판단이 늘 옳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고 막막할수록 오직 약속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밀착시킵니다. 그 깊은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내 뜻을 억지로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인도만을 구하는 기도로 고차원적 변화를 이룹니다.

이에 반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역시 광야의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듣고 자발적으로 세 가지 서원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년 동안 그는 이쁜 아내를 얻고 막대한 재산을 모으는 세속적인 가치에만 온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뒤에도 서원은 완전히 잊었습니다. 심지어 압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뀐 뒤에도 서원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 디나가 몸쓸 봉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절체 절명의 풍파를 겪고 나서야 야곱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는 늙어서야 겨우 베델로 올라가 눈물로 제단을 쌓았고 험악한 긴 세월을 낭비하고 나서야 인생을 겨우 회복해 냈습니다.

야곱처럼 혹독한 인생의 채찍을 맞고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즉각 말씀에 나를 단단히 매어 두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구체적인 매일의 말과 일상적 행동이 그 말씀과 멀리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껌데기만 남은 빈털터리 인생을 사는 꼴입니다. 삶의 방향이 아득하고 내 갈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방황할 때일수록 우리는 한 눈팔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긴밀하게 묶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찬란한 섭리와 약속대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을 비로소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